

여성 및 가족문제와 기독교사회복지 프로그램

조홍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여성 및 가족문제와 기독교사회복지의 역할

가족은 사회제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며, 역사와 민족, 시대적 변천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틀을 벗어난 다양한 가족생활양식을 가지며, 경제위기와 맞물려 가족해체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가족의 기초 단위인 부부 체계가 흔들리면서 이혼율이 높아지며, 한부모가족, 독신가족, 심지어 동성애가족 등 새로운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삶의 의지조차 상실한 파산가정이 증가하는 심각한 실정이다. 경제적 파산가정의 증가는 곧바로 가정불화로 이어지고 여성 문제로 비화되며, 또한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등 크나큰 사회문제로 표출된다. 더 이상 가족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여성 및 가족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적극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는다면 국가의 불행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성 및 가족복지에 힘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여성 및 가족문제는 포괄적으로 볼 때 사회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사회문제란 대체로 영향력 있는 집단이 특정한 사회현상을 두고서 그것이 사회가치관을 저해한다고 규정할 때 존재하며, 그런 현상은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Sullivan & Thompson, 1988:3)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볼 때 가족문제는 영향력 있는 집단에 의해 사회가치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가족들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가족구성원 뿐만 아니라 가족 외부사람들도 포함된다.

따라서 여성 및 가족문제는 여성 및 가족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사회의 공동 노력의 대표적인 주체로는 국가 및 민간조직을 들 수 있다. 민간조직으로는 각종 사회복지기관과 단체들 및 종교기관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교회는 생성되었을 때부터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족간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와 구원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해 왔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사회복지의 기본 역할은 가족복지의 강화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족복지사업은 교회 안의 여성을 포함한 교인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회밖에 있는 여성 및 이웃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에 교회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의 희망은 여성을 포함한 전체 가족생활에 성경적 개념을 회복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가족생활에 기초가 되는 언약적 사랑과,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 행위 속에서 드러내는 것은 사회에 적절한 질서를 조성시키는 데 필요하다. 따라서 안정되고 건강한 가족생

활은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회복시키고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2. 여성 및 가족문제에 대한 기독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제

오늘날 안정되고 건강한 가족생활은 사랑, 은혜, 능력부여, 친밀감을 포함하는 가족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회복시키고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현대화에 의한 갈등이 인간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Balswick와 Balswick(1990:280-84)이 제시한 인간의 '사회·문화적 삶의 4차원(four dimensions of sociocultural life)' 모델에 의하면, 4차원은 의식의 분열, 의사소통의 복잡성, 공동체의 해체, 상품의 지배 등으로 이들 갈등이 가족에게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4차원 모델을 토대로 하여 여성 및 가족을 위한 기독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전제들을 살펴보자(조홍식, 1995).

1. 의식의 재통합

사람은 가치나 신념체계를 갖출 때 자신의 경험들을 통합할 수 있다. 고립된 핵가족은 그러한 체계를 개발하거나 지속시킬 수 없다. 따라서 여성 및 가족이 의식의 재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독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가져야 한다.

첫째,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해 일관성 있는 가치나 신념체계를 교인들이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와 그 분을 증거 함으로써 세상의 유혹에 대항하여 우리 문화의 변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한다.

셋째, 교회나 여성 및 가족이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적인 체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즉 교회와 여성 및 가족은 여러모로 다른 타인에 대해 확장된 인식과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교인들은 그들 자신이 속한 집단에만 관심을 쏟기보다 진정으로 세계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2. 의사소통의 회복

커뮤니케이션은 우리의 공동체적 생활을 재구성하고 우리의 의식을 재충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가족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말에 대한 기교와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비교하며 타인의 고유성을 배울 수 있는 자연스런 환경을 형성해야 하며, 나아가서 여성 및 가족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발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회복을 위해 기독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가져야 한다. 첫째, 교회는 모든 참여자들을 위해 역할을 재창조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성직자/평신도 사이의 차이(gap)가 극소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성직자가 평신도와 사역을 같이 함으로써 교인들도 사역에 대한 책임과 기회를 갖도록 함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능력부여 과정이 교회 안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서 참여적인 성경공부(Participatory Bible Studies)와 설교를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교회 공동생활과,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아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다.

둘째, 교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창조적으로 표현할 자유를 부여한다. 전통적인 상징과 언어가 점차 상실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배의 표현을 오히려 새롭게 탐색해 보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교회는 의사소통을 빈약하게 하는 고착된 말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좀더 열린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복음성가 공연, 미술 전람, 신인극작가의 성극, 무용가들의 공연도 환영해야 한다.

셋째, 여성 및 가족상담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전문적 부서를 교회 내에 설치하며, 교인들 집단토의 프로그램(예비부부, 부부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시행한다.

3. 공동체의 재구성

가족의 공동체적 특성은 한편으로는 대중사회의 요구와 강요에 의해서 또 한편으로는 나날이 자기도취적으로 되어 가는 개인주의에 의해 허물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이 갖는 의미에 관한 성경적 인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언뜻 보기에 역설적으로 보이는 아래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기독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가져야 한다.

첫째, 여성 및 가족은 가족생활을 침해하고 가족생활의 생명력을 점차 약화시키는 다양한 힘의 유입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경제제도의 침해로부터 여성 및 가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행정제도, 교육제도 심지어 종교제도들이 하는 요구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호소를 할 수 있다. 이런 각종 제도의 요구로 인해 여성 및 가족은 분열되며, 여성 및 가족이 분열되는 것은 이런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한 결과이다.

계약과 법률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으로 기초를 둔 가족생활은 경쟁적인 세계에서 싸우느라 지쳐있는 여성을 포함한 가족원에게 필요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언약과 은혜(은총)와 능력부여와 친밀감에 기반을 둔 가족생활은 안식처와 재충전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는 신약의 공동체 개념인 코이노니아(Koinonia)를 표명한 것이다. 진정으로 상호봉사의 원리에 근거한 가족은 기독교인 공동체 정신의 원형이다.

둘째,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것은 가족의 개념이 사회에 대해 배타적이기보다는 포괄적인 것이 될 때만 일어날 수 있다. 만약 충성심이 가족 속에만 자리잡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 자리잡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은 가족의 자연적인 질서를 해체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가족의 자연적인 질서인 '돌보는 관계'를 가족외부로 확장하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볼 때, 포용성과 가족생활 속의 강한 유대는 외형상으로만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내적으로 강한 가족만이 기독교인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기독교인 공동체 속에 가족들이 소명을 다하는 것은 기독교인 공동체의 봉사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내적으로 강한 교회만이 그 자신이 일부가 되는 더 큰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이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공동체의 재구성을 위해서 교회는 신약성경의 코이노니아 개념을 실현해야 한다. 코이노니아는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정체감과 목적 안에서 연합된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자발적으로 공유한 것이다. 이들은 시민으로서의 정치생활(Politeia)과 가족생활(Oikonomia)에 같이 참여했다. 코이노니아는 총

괄적인 비인격적인 국가와, 배타적이고 혈연에 기반한 가족공동체 사이에 위치한 새로운 유형의 지역공동체이다. 형태적으로 교회는 가족과 같은데 이는 모든 교인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야 하며 고립된 핵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정체감과 지원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생각」에서 Roger Banks(1980:42)는 초대교회가 신자의 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친교의 범위는 약 20명 혹은 30명 정도의 사람으로 한정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사회과학자들이 25명 내지 30명을 넘지 않는 정도의 사람들끼리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연구, 발표한 사실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코이노니아를 실천하고자 하는 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소집단(25명 이내) 안에서 구성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를 알고, 서로를 돌봐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예컨대 구역별 가족모임을 활성화한다. 둘째, 교회는 배타성의 함정과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만을 수용하려는 경향을 탈피해야 하는데, 지역사회 내의 과부, 고아, 장애인, 가난한 사람, 독신, 결손가족을 환영함으로써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선교해야 한다.

4. 상품 지배로부터의 해방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환경 창조의 첫걸음은 상품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건강한 가족생활의 회복은 우리의 경제체제에 만연되어 있는 생산성 지상주의, 효율성 지상주의, 배금주의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기독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가져야 한다.

첫째, 기독교인 고용주로 하여금 피고용인이 가족관계에 우선 두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사업체 내에 많이 만들도록 조언해야 한다.

둘째, 관계의 목표에 스스로를 헌신하는 부모와 자녀, 여성 모두에게 지지와 경제적 후원을 주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취업모를 위한 보육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가족원의 간호, 중요한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해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부담을 진 특별한 가족들의 요구에 대해서 지원과 보호공동체(care community)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교환 측면에서 결혼과 가족을 생각하는 ‘상품화된 가족생활 모형’으로부터 가족구성원 상호능력을 부여하고 봉사하는 ‘성경적 모형’으로 대체하는 가족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교회에서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 드리는 예배가 아닌 전체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5. 사회 살롬의 확립

구약에서의 살롬(Shalom)의 개념은 복지사회를 특징적으로 나타낸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평화’란 말로 번역된다. 그러나 평화는 단지 갈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살롬은 평화뿐만 아니라 정의와 진실이 그 특징인 문화를 만든다.

따라서 살롬이 있으려면 만성적인 실업과 극빈자에 대한 억압이 없어야만 한다. 가난

을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 안식처, 의복을 주는 것이지만 가난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사회조건들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살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살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 스스로가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사회조건까지 변화시켜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살림은 여성 및 가족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사회구조를 가진 사회에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여성 및 가족을 희생하고라도 경제제도가 우선적으로 유지 하길 원하는 사회라면 살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 살림을 위하여 기독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가져야 한다.

첫째, 목회차원에서 사회의 평화와 정의의 근본이 되는 여성 및 가족복지를 위해 전반적인 여성과 가족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교회는 정부와 기업이 여성과 가족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사회의 압력 단체 역할을 과감히 해야 한다.

셋째, 억압과 차별적인 각종 사회제도를 개혁하는 적극적인 사회행동에도 기독교는 때때로 동참해야 한다.

3. 여성 및 가족문제에 대한 기독교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교회 활동지침

여성 및 가족문제에 대한 기독교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교회 활동지침을 2004년 10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에서 채택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가족복지선교지침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여성 및 가족문제에 대한 기독교사회복지 프로그램

(1) 예방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① 결혼예비학교(이삭과 리브가 등) - 결혼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정, 결혼의 중요성과 의미를 가르치고, 건강한 가정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신혼부부학교(요셉과 마리아 등) - 신혼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을 처리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의사소통과 관계훈련을 하도록 하여 견고한 가정을 이루도록 한다.

③ 아버지학교 -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리자로 가정에 세워 주신 지도자이며, 제사장이며, 목자임을 가르쳐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구체적인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가르침으로써, 성경적 가정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성경적인 아버지가 되고자 결단케 하며, 이를 실천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어머니학교(아내교실, 남편 사랑교실 등) - 성경적인 여성상을 제시하여 이 땅의 어머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돕는 배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자녀를 잘 양육하여 가정을 세우며 궁극적으로는 열국의 어머니로서 교회와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는다.

⑤ 부부성장학교(행복한 부부만들기, 가정행복학교 등) - 가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부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회복시키고,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상을 배우며, 구체적인 방법들을 훈련한다.

⑥ 부모훈련(좋은 부모학교 등) - 교회 내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신앙관을 확고히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방법을 배우고, 나아가 가정이 기독교신앙을 세우는 기관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부모역할을 훈련하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가 되도록 한다.

⑦ 가족캠프(가족수련회 등) - 가족단위로 수련회를 함으로써 가족관계 강화를 통한 공동체 회복, 아름다운 가족 만들기,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사랑 세우기, 가족사랑 지키고 유지하기 등 가정의 정체성을 증가시키는 좋은 영향을 준다.

⑧ 노인교실(천국준비교실, 아브라함학교 등) - 우선 노인들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인격적인 접촉을 제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노인의 자기 관리, 풍성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사역을 진행하여 의미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⑨ 싱글사역(독신 / 사별 / 이혼자들을 위한 사역 등) - 교회 내의 과거 가정과 결혼생활을 통해 받은 상처로부터의 회복과 믿음의 성숙을 목표로 하고,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역으로서 이혼자 회복학교(DRS), 사별자 회복학교, 독신자학교, 한부모학교 그리고 재혼예비학교 등의 사역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⑩ 고부학교 -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고 출발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어려운 고부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건강한 가족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훈련, 영성훈련 등으로 돕는다.

⑪ 대화학교(언어생활세미나) - 대화란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상호적인 언어활동을 뜻하며,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활동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갈등의 기초는 대화와 의사소통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대화를 위한 자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훈련하여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⑫ 상담학교 - 상담사역은 상담사역 전문가나 목회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구역장, 교사 등 모든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상담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된 상담원 양성과 평신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상담사역은 확대되어야 한다.

⑬ 가정생활 세미나 - 성도들의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를 통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며, 위기와 해체를 예방한다.

(2) 위기발생시 돕고 치유하는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① 의형제 맺어주기(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 - 교회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의형제(big brothers, big sisters) 맺기 활동을 통해 일대 일 관계 속에서 정서적 곁핍을 경험하는 아동들을 지원한다.

② 멘토 맺어주기(방임 및 학대부모들) - 지역사회 내에서 방임 및 학대부모들의 멘토(mentor)로서의 역할을 통해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 활동을 한다.

③ 노인층 재가복지 서비스 -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하여 도시락 배달, 심부름 봉사, 세탁봉사, 간병 등 재가복지를 통해 어르신들을 섬긴다.

④ 빈곤층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이나 놀이방, 보호시설, 어린이 도서관 - 저소득층 자녀

들이나 방임되어 있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공간을 활용하여 공부방(지역아동센터) 등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보호하며 식사 등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한다.

⑤ 장학금 지급 - 지역 내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⑥ 위기가정의 가족들을 위한 심리치료와 상담 - 지역 내 상담소, 정신과 등과 연계하여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가정 중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뢰하여 치료하도록 한다.

⑦ 지역의 빈곤층,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 위기상황에 처한 자녀들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 - 심리치료와 신앙적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⑧ 주간노인보호센터 - 교회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이용자 및 가족을 위한 상담, 차량 운행, 일상생활훈련, 간호서비스, 취미활동, 견학, 특별행사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심신 기능을 최대한 유지·향상시키며 이를 통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노인과 그 가족이 가정과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를 도모한다.

2) 여성 및 가족문제에 대한 교회 활동지침

(1) 개교회 차원에서의 활동지침

① (조직구성) 개교회에서 가족복지선교프로그램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을 전공하였거나 가족복지선교를 경험한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이 사역을 전담하도록 하고 목회의 중요한 동역자로 활용하도록 한다. 예) 가족복지부(위원회), 가정사역부(위원회), 사회봉사부 등.

② (인식확산) 교역자와 교회의 중직자들이 먼저 가족복지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확산시키며, 주도적으로 이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한다.

③ (예산배정) 가족복지선교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 사역이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교역자와 중직자 교육) 교역자와 교회의 중직자들이 우선적으로 가족복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교육을 받도록 하며, 교회가 전체적으로 가족복지선교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⑤ (가족복지의 지속성) 가족복지 프로그램들이 단기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⑥ (구역 조직) 교회는 구역조직을 통하여 위기에 처한 가정을 심방하고 신앙적으로 해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며, 심리적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하는 일도 병행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⑦ (쉼터 개설) 교회와 지역사회를 아울러 교회 내/외부에 쉼터를 개설하여 위기에 처한 가정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하고, 가정의 회복을 돕고 차후문제를 해결하는데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⑧ (전문센터 활용) 보호시설, 혹은 치료시설에 가족을 의뢰할 경우에는 목회자의 추천과 교회의 배려로 전문보호시설과 센터에 수용되어 치유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⑨ (지지그룹의 확대) 교회 내의 구역이나 선교기관 등 소그룹을 중심으로 위기가정의

지지그룹이 되게 하고, 교역자를 중심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 가정문제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신앙적·심리적·정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⑩ (목회적 배려) 가정의 질서 문제와 윤리적인 가치관의 형성을 위하여 설교와 교육을 통하여 교인들을 훈련시키며, 문제 가정이 발생할 시에는 교우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 수치심으로 교회를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2) 노회차원에서의 활동지침

① (조직구성) 총회와의 관계에서 가족복지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나 위원회를 책임 있는 목회자나 평신도들로 구성하여 이 사역을 실무적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자문팀 구성) 노회는 가족복지선교에 관련된 외부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가족복지선교 자문팀을 구성하여 노회 내 개교회 및 기관이 필요시에 지도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그룹을 통해 치유적인 차원에서 가족상담, 치유상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협의체 구성) 노회는 노회 내 개교회 및 기관에서 전개되고 있는 가족복지선교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노회 내의 가족복지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나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다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④ (훈련 프로그램) 총회와 연계하여 개교회의 가족복지선교를 실무에서 책임지고 있는 인적자원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⑤ (프로그램 개설) 노회는 개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가족복지선교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개교회로부터 의뢰된 가족들을 보호하고 상담하고 돕는다. 예를 들어 미혼모를 위한 쉼터, 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보호센터,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쉼터를 운영하거나 법률, 개인, 가정문제 등 전문적인 상담을 위한 상담소 등을 운영하여 개교회로부터 의뢰된 가족들을 상담하고 돕는다.

⑥ (연합프로그램) 노회 내의 소규모 교회들이 연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가족복지 프로그램들을 연합사업으로 조직화하여 진행하도록 돕는다. 즉 개교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가족복지 프로그램들 중 규모가 작고 인적자원을 충원할 수 없는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부부프로그램 등의 건강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나, 각종 세미나 또는 강좌 개설, 청소년 자녀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 등이다.

⑦ (캠핑 프로그램) 노회의 교육부 등과 협력하여 노회 내의 소년소녀 가장, 빈곤가정 자녀들,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 각 교회의 추천을 받거나 지역 내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자녀, 빈곤가정의 자녀들을 초청하여 영적 프로그램과 더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건강한 정신과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⑧ (사업연계) 노회의 지역에 속한 복지관 등에서의 가족복지선교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가족복지시설과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가도록 한다.

⑨ (사례보급) 노회의 각 모임에서 가족복지를 위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소속 교회 중 가족복지선교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교회를 매년 시범교회로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노회 산하 여러 교회를 위한 선교모델로 개발·보급한다.

(3) 총회 차원에서의 활동지침

① (조직구성) 총회 산하에 가족복지선교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즉 가칭 “가족복지선교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도록 한다.

② (정책개발) 총회 산하 각 노회와 교회에서 가족복지선교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가족복지선교를 위한 지침서, 사역의 자료들을 보급토록 한다.

③ (협의체 구성) 총회차원에서 교계, 학계, 현장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족복지선교 정책개발과 전문성을 가지고 확장시켜 나가도록 한다.

④ (협력체계구축) 가족복지선교의 효과적인 정책구현을 위해 총회 - 노회 - 개교회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총회와 노회, 개교회의 가족복지 실무자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단 내에서의 가족복지선교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신학생 교육) 가족복지선교를 위하여 각 신학교 신대원 과정에서부터 이와 관련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신학생 가족복지 훈련을 위한 단기 임상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 경험하도록 한다.

⑥ (교육프로그램 개설) 가정사역, 가족복지선교를 위한 인력 양성 요구에 부응하여 총회 산하에 가족복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관심 있는 목회자나 평신도들을 훈련하고 총회 차원에서의 인적자원을 양성한다.

⑦ (세부 지침서 제작) 가족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과 가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신학적 검토와 개교회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서를 제작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별거위기, 이혼위기, 한부모와 자녀교육의 위기, 재혼에 따른 자녀문제 등에 따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바로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서를 제작하고 보급한다.

⑧ (대사회적 과제) 총회차원에서 전문가 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가족복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개발하고 정부나 사회단체 등에 제안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영되도록 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⑨ (가족복지시설) 총회산하에 시범적으로 가족복지선교를 위한 센터를 개설하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운영하며, 프로그램들을 통해 위기가족들을 치유·보호하도록 하여 노회와 개교회의 시범사례로 소개되도록 한다. 예) 위기가족을 위한 쉼터, 탈북동포가족 내지 특수 상황에 처한 가족 생활시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노숙자 등의 가족을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전문치유센터 등.

⑩ (사례보급) 교단 내의 가족복지선교를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교회나 기관, 단체를 찾아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고 가족복지선교에 뜻이 있는 교회나 기관에서의 선교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200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가족복지선교지침서].
조홍식. 1995. "가족문제와 교회의 역할." 한국기독교사회복지회 편. [기독교와 사회복지].
예안.

Balswick, J. O. & Balswick, J. K. 1990. *The Family: A Christian Perspective on the Contemporary Hom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Banks, R. 1980. *Paul's Idea of Community*. Grand Rapids: Eerdmans.

Sullivan, T. & K. Thompson. 1988. *Introduction to Social Problems*. N.Y.: Macmillan.

<저자소개>

성명: 조흥식(曹興植)

(역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 서울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박사, 영국 Hull 대학교 객원교수, 미국 Chicago Loyola 사회복지대학원 교환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회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사회복지위원장,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개봉교회 장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서비스, 빈곤가족복지론 전공), 대통령직속 농특위 농촌복지분과위원장,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 노동부 정책자문위원

(저서) 한국사회복지론, 가족복지학, 여성복지학, 산업복지론, 사회복지실천론 등 다수

(연락) 연구실 02)880-6459

(E-mail) chohs@snu.ac.kr